

특별강연

간호사 없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못해  
숙련된 간호사 장기근속 환경 만들어야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테이블에  
적극 참여해 간호리더십 발휘하라

‘세계간호현황보고서’ 내년 4월 7일 발표  
정책활동 추진 시 유용한 근거자료 될 것

제임스 뷰컨  
퀸 마가렛대 교수



하워드 캐튼  
ICN 사무총장



미셸 럼지  
WHO 시드니협력센터장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장기근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임스 뷰컨(James Buchan) 퀸 마가렛대 교수가 내한해 ‘국제 리더십 세미나’(11월 20일) 및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11월 21일)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제임스 뷰컨 교수는 보건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 및 국제 정책자문을 지낸 전문가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 보건의료시스템과 정책감시기구 선임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임스 뷰컨 교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보편적 건강보장(UHC)은 간호사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목표 달성을 이루기에는 세계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간호사를 늘리는 것은 비용지출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에 투자할 때 수익률은 9:1 즉 9배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인구의 예상수명이 1년 더 늘어나면 1인당 국내총생산량이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의료분야에서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포괄적인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서든 동등하게 간호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어야 한다”면서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촉구할 때는 간호사를 확충하는 것이 보건의료분야는 물론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제임스 뷰컨 교수는 “신입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새로 배출되는 간호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간호요구에 맞는 적절한 기술과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는 간호사 이직률이 높아지고, 결국 간호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환자결과가 나빠지며, 남아 있는 간호사들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 한 명이 이직한 후 새 인력을 채용하기까지 필요한 구인광고비, 훈련시간, 숙련도 등을 고려하면 비용손실이 최소 몇 달치 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뷰컨 교수는 “간호사 인력 정책, 계획, 규정,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접근하고, 정부 부처 간에 조율하고 협업해야 한다”면서 “각국 간호협회에서는 정책입안자들에게 근거에 기반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간호리더십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은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이며, 간호전문직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위대한 기회입니다.”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국제간호협회(ICN) 사무총장이 내한해 ‘국제 리더십 세미나’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세미나는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11월 20일 국회의원과관에서 열렸다.

하워드 캐튼 사무총장은 “우리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이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으며, 때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간호사로서 멋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특히 지금이야말로 보건의료가 당연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 가장 빛나는 시기이며, 미래 세대 간호사들을 위해 준비하면서 간호전문직이 인정받고 평가받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캐튼 사무총장은 “ICN은 1899년 설립됐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라면서 “세계 2400만 간호사들을 옹호하면서 간호전문직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보건·사회·경제·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ICN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WHO 간호정책 수석인 엘리자베스 아이로는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정책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 테이블에 주도적으로 자리를 만들고 들어가 있어야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통해 향상된 건강결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간호의 결과를 보여주는 근거를 갖고 정책입안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캐튼 사무총장은 “2020년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간호리더십과 책임감이 필요하며,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한국은 물론 세계 간호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활동을 ICN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발표될 세계간호현황보고서는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용한 근거와 통찰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셸 럼지(Michele Rumsey) WHO 시드니협력센터장이 내한해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11월 21일)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간호현황보고서(SoWN : The State of the World’s Nursing Report)’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 정부를 통해 간호현황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2020년 4월 7일 세계 보건 날에 발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서는 간호사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보편적 건강보장(UHC)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는지(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 향후 3~5년간 정책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술하게 된다.

회원국들의 간호인력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간호사 수, 교육, 규정(법), 근무환경, 리더십, 젠더 이슈 등을 다룬다.

보고서를 통해 각국 간호협회가 통계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각국의 간호사 인력개발을 촉진하고, 간호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셸 럼지 센터장은 “세계간호현황보고서 작성은 정말 기대되는 작업이며, 간호사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라며 “이는 단순히 각국의 간호현황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당국과 대화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세계간호현황보고서가 정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셸 럼지 센터장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글로벌 어젠다인 SDGs와 UHC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WHO가 추진하는 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정책활동을 할 때 적절한 소통과 설득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각국 정부의 간호정책수석(CNO : Chief Nursing Officer)들이 세계보건총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연설을 매우 감명 깊게 들었다”면서 “정책활동을 통해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야 하며, 정책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간호현황보고서와 관련 국제간호협회(ICN)는 각국의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